해 외 연 수 보 고 서

▣ 연수국가 : 일　본
▣ 연수기간 : 2009. 7. 13 ~ 7. 18
▣ 연수의원 : 송용욱 의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 론

도오꾜는 도후지산과 함께 일본을 상징하는 대도시 도꾜, 일본 정치·외교의 중심지이자 산업과 문화 집중된 수도 도꾜는 세련된 멋으로 여행자를 맞이한다. 특히 전후 50년 동안 깔끔하게 다듬어진 도시의 형태와 일본인 특유의 섬세함으로 포장된 모습은 도꾜를 세계적 수준의 대도시로 손꼽기에 주저함이 없게 한다. 물론 부자 나라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비좁은 도로와 게딱지만한 집,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 무국적 문화에 멍들어 가는 암울한 현실도 엄연히 공존하지만, 이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이 도시가 변화에 온 증거이기도 하다.

도꾜의 도시화는 5~6세기 야마또 大和정권의 세력이 이곳까지 확대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야마또 정권은 서기 645년이 지역을 고대 일본 행정구역의 하나인 무사시노구니 지정하고 통치력을 강화해 나갔다. 동시에 한반도의 삼국통일과 더불어 일본으로 피신해 간 고구려인가 신라인이 각가 코마군 군 高麗郡과 시라기군 新羅郡을 시설하면서 무사시노구니의 성장에 일익을 담당했다.

코마군의 흔적은 아직까지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도꾜에서 1시간쯤 떨어진 교외로 나가면 '고려'라는 지명과 함께 유적이 보존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전후 쑥대밭이 된 도꾜가 한국전쟁 특수(特需)를 배경으로 부활한 것처럼, 도꾜의 과거사 또한 우리 민족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본 론

1. 에도 바꾸후의 성립과 발전

세월의 흐름 속에 도꾜의 존재는 무대 뒤편으로 밀려나 있었다.
더구나 일본 중세사에서 과거의 도꾜, 즉 에도 江戶는 단지 그만 어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토요또미 히데요시 사후 정권을 장악한 토꾸기와 이에야스 德川家康가 1603년 근거지를 교또 京都에서 에도로 옮겨 에도 바꾸후 江戶를 세우면서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 드시어 에도가 정치와 대규모 소비도시로 변모할 태세를 갖춘 것이다. 하지만 700년 가까운 역사적 배경 탓이였을까?
정치는 교또, 경제적 기반은 오사까지 집중된 채 쉽사리 이전되지 못했다
다시 오랜 세월이 흘러 근대화 초기 왕정복고와 함께 시작된 메이지 明治 유신은 구(舊)바꾸후 세력을 타파하고 낡은 정치체제를 일신한다는 의미로 천년고도(千年古都)교또를 버리고 에도로 수도를 옮기는 과감한 모험을 단행한다.
그때가 지금부터 140여 년 전인 1868년! 이와 동시에 에도라는 이름도 '교또의 동쪽(東)에 위치한 수도(京)'를 뜻하는 도꾜 東京로 탈바꿈한다.

동시에 수도로 집중된 인구는 도꾜의 범위를 차츰 넓혀 나갔다. 하지만 1923년 관동대지진과 1945년 도꾜 대공습이라는 전대미문의 참화를 겪으며 도시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는다. 그 뒤 대대적 재개발 과정에서 주택지의 교외 확장이 더욱 가속화해 지금의 23개 특별구를 지닌 거대한 도꾜도 東京都의 위용을 갖추게 된 것이다.

2. 면적은 서울 3백 인구는 서울과 비슷하다

도꾜는 혼슈중앙에 해당하는 칸또 지방의 남부 분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에 오르면 도꾜 일대를 빙 둘러싼 산맥과 봉곳이 올라온 후지산의 정상이 보이죠 반대편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태평양입니다. 도꾜와 마주한 까닭에 도꾜만(灣)이라고 불리는 바다는 에도시대를 거치며 물자가 오가는 대규모 항구로 성장했고, 이에 힘입어 도꾜가 지금처럼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죠.
현재 도꾜의 인구는 약1,200만 명, 서울의 인구가 약1,000만 명이니까 비슷하다

고 봐야겠죠, 그 가운데 80%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라네요. 면적이 2,183㎢로 서울의 3배 인구밀도는 5,482. 1명/㎢으로 일본 최고를 자랑합니다.
개발이 시작된 지 100년이 조금 넘은 인구밀도 최저의 홋까이도 北海道와 비교하면 무려 80배나 차이가 난다나요? 그래서 도꾜 시민은 홋까이도에 대한 무의식적인 동경(憧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꾜도의 '도 郡 "라는 행정단위는 우리나라의 ' 특별시 '에 해당하는데 일본 천국에서 딱 한 군데, 바로 도꾜뿐입니다. 도꾜도는 다시 23개 특별구와 26개시(市), 7개 정(町), 8개의 촌(村)으로 나뉘는 복잡한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3. 관동대지진

1923년 9월 1일 11시58분에 발생했으며 진도7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9만 9,331명, 민심 수습을 위해 일본 정부가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해 조선인 학살, 즉 관동 대학실이 벌어졌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일본측에서는 2,534명, 우리측에서는 6,066명의 조선인이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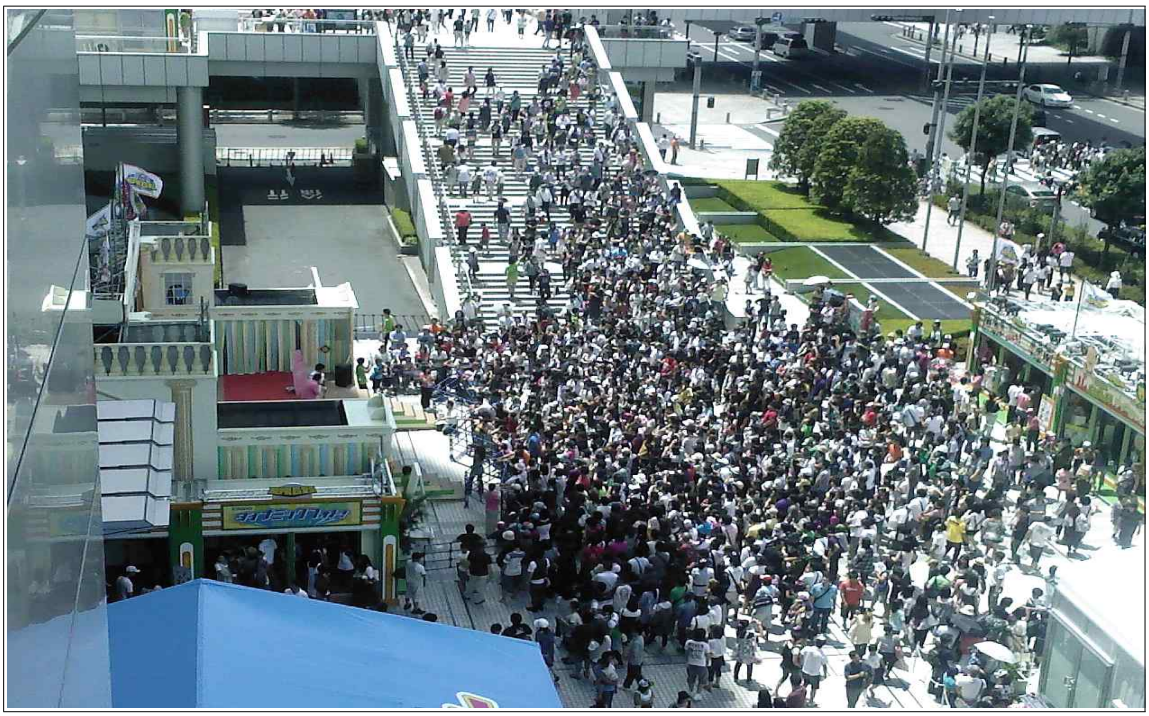
4. 도시화 과정과 기능적 분화

제2차 세계대전 뒤, 도꾜가 거대 도시화 하면서 지역을 세분화한 기능적 분화가 이루어졌다. 1952년의 '중앙관아지구 정비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본 정치의 핵심적 구실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일왕의 거처인 고꾜 皇居를 중심으로 카스미가세키 霞ガ, 나가따쬬 永田町, 하야부사쪼등 지로 옮겨졌고, 경제와 사업의 중추를 이루는 대기업과 은행의 본사는 도꾜역 주변의 마루노우찌 內 지역에 자리잡게 됐다.

하지만 에도시대 이래 전통 상업 및 서민가로 자리잡아 온 시따마찌 下町, 즉 지금의 쮸오 中央, 타이또 칸다,우에노 아사꾸사 둥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의 여파가 덜 미쳐 드문드문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우에노와 아사꾸사는 일본 특유의 서민적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서울의 지하철 2호선처럼 도꾜 도심을 동그랗게 에워싼 전철 JP 야마노떼센을 따라서는 수도 도꾜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떠맡을 부도심이 개발됐다.
그래서 탄생한 곳이 신쥬꾸 이께부꾸로 시부야등이다. 부도심은 주택지와 도심지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오늘날 일본의 패션과 문화를 주도하는

일대 변화기로 번창했다.
특히 신쥬꾸는 도꾜도의 관청과 대기업 본사가 들어선 대표적 부도심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은 도심 개발이 포화 상태를 이룬 탓에 도꾜만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최근 신도심으로 급부상한 오디이바 이곳은 현재 세련된 주거지 및 쇼핑・비즈니스 구역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중이다



5. JR線

JR은 Jepan Railway에서 운영하는 전철 구간으로 도꾜 시내의 주요 명소를 연결하는 대단히 유용한 노선이다.
전철・지하철 노선도에 검은색으로 밋밋하게 그려져 있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지만, 실제로는 JR만 타고 다녀도 도꾜 시내의 주요 볼거리 90%는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활용도가 높다.
여행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선은 야마노떼센 山手線, 소부센, 쭈오센 中央線이다. 각 노선은 차량에 노선 이름이 붙어 있고 색깔로도 구별한다.
야마노떼센은 연두색, 소부센은 노란색, 쥬오센은 주황색이다.
서울의 지하철 2호선처럼 환상선(環狀線)인 야마노떼센은 도꾜 시내를 동그랗게 에워싸며 운행된다.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쯤, 주요 볼거리는 대부분 야마노떼센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는 우찌마와리 內回와 시계 방향으로 도는 소또마와리 外回가 있으니 방향 선택에 주의하자. 자칫하면 엉뚱한방향으로 가는 수가 있다.

6. 지하철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도꼬 시내를 여행할 때는 JR 야마노떼센의 이용빈도가 높다. 하지만 시내를 커다란 원으로 연결하는 환상선(環狀線)이라 특정 지역을 찾아가려면 상당히 불편한 경우도 있다. 이럴때는 비슷한 곳을 지나는 지하철 노선을 찾아보는 게 요령. JR야마노떼센 안쪽으로 거미 줄처럼 연결된 노선 가운데는 JR보다 싸고 빠른 것도 있다.

지하철 노선은 모두 13개, 이 가운데 9개는 도꼬 메트로 소속이며 나머지 4개는 토에이 소속이다. 지하철 이용시 주의할 점은 같은 회사에 소속된 노선안에서는 티켓 한 장으로 자유로이 갈아탈 수 있지만, 소속이 다른 회사의 노선으로 갈아탈 때는 티켓을 새로 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꼬 메트로 소속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토에이 소속의 지하철로 갈아타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갈아탈 때가 거기 해당한다.
즉 갈아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추가요금을 낼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소리, 티켓 한 장으로 끝나는 우리나라의 지하철처럼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한다.

7. 전철 · 지하철로 보는 서울과 도꾜

도꾜 시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전철과 지하철 하루에도 몇 번씩 타게 되는 이것들이 어딘지 모르게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이나 우리나라의 기차와 닮았다는 생각이이 종종들 겁니다. 그 이유는 기차의 운행 방향을 떠올려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유치원 때부터 끈임없이 교육받았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차량은 우측, 사람은 좌측통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과는 반대로 서울의 지하철 1호선과 기차만은 일본처럼 좌측 통행을 한다. 원인은 우리나라의 철도가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나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은 일제강점기가 지나고도 한참 뒤에 만들어졌지만, 지하철 중견에 국철 구간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국철의 집행방항, 즉 일본 지하철이나 전철과 같은 방향을 따라야했던 겁니다. 몇 십년 운행해 온 기차의 진행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룻밤 만이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8. 택시

기본요금은 정해져 있지만, 택시의 크기와 회사에 따라 요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고 타는 게 좋다. 대개 운전석이나 차체에 기본요금 얼마라고 크게 쓰여 있다.

요금은 시간 · 거리 병산제에 심야 할증까지 있어 결코 싸지 않다.

지하철로 세 정거장쯤의 거리를 달리면 1,000엔 정도, 거리가 짧을 때에 한해 3~4명이 함께 타면 지하철 요금과 비슷하게 이용할 수는 있다

승차 거부는 없지만 지정된 승차장이 아니면 세워 주지 않기도 한다.

택시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도록 운전석에서 조작하므로 무리하게 손으로 열거나 닫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합승은 불가능하다. 길은 전혀 모를 때는 운전사에게 목적지의 정확한 주소만 건네주면 대부분 찾아갈 수 있다.

9. 신쥬꾸

일본 정치 · 경제의 심정부인 도꾜의 명실상 부한 부도심 JR 신쥬구역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의 지역적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게 특징이다. 역 동쪽에 위치한

히가시신쥬꾸 東新 가 쇼핑 · 식당 · 유흥가가 늘어난 소비 문화의 중심자라면, 서쪽의 니시신쥬꾸 西新는 높다란 빌딩 숲 속에 관고서와 대기업의 사무실이 몰려 있는 오피스 타운, 즉 신쥬꾸역을 기점으로 양쪽을 오가며 베짱이처럼 놀기 좋아하는 일본인과 개미처럼 바지런히 일하는 일본인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것이다.

10. 신쥬꾸역

신쥬꾸 한복판이 당당히 서 있는 이역은 교외로 나가는 각종 시떼쯔 私鉄와 JR의 발착역이다. 게다가 지하에는 3개 노선의 지하철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고, 인근에는 칸사이 지역과 우지산 富士山을 오가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어 1일 유동 인구가 350만 명을 헤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번잡한 곳이다.
역 자체로는 큰 흥미가 없지만 신쥬꾸의 중심이라는 점과 도꼬의 생동감이 넘치는 역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히가시구찌 東口로 나가면 마이시티My City라는 백화점이 보이는데,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끈 <시티 헌터 City Hunter>를 비롯해 각종 일본 만화에 자주 등장하는 건물이다.

신쥬꾸라는 이름의 마을이 생겨난 때는 지금부터 300여년 전인 1698년 무렵입니다. 그 당시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는 도꼬에서 서쪽으로 300㎞ 정도 떨어진 칸사이 지역이었지만, 실질적 권력은 에도 江戸(지금의 도꼬)의 바꾸후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두지역을 오가는 관리와 상인 무척 많았죠.

당시 칸사이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가 에도의 중심 부인 나홈바시 日本로 가기전에 잠시 묵어가던 곳이 바로 신쥬꾸였습니다. 세로운(新) 숙방지를 뜻하는 지명도 그때 붙여졌는데, 우리로 치면 일족의 주막 거리였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에 들어서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대화한 수도의 역할을 분담시키고자 신쥬꾸와 이께부꾸로 부도심으로 선정됐습니다. 두 지역은 도시계획이 착실히 진행돼 지금은 명실상부한 부도심의 자리를 이어받았죠.
하지만 딱딱한 오피스 타운으로 발전한 이께부꾸로보다는 좀더 젊고 화려한 모습의 신쥬꾸가 젊은이에게 인기 있답니다.

11. 니시신쥬꾸는 원래 정수장

니시신쥬꾸는 첫인상이 무척 산뜻하다. 도로는 자로 그은 듯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고 거리는 장난감 블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듯 반듯하게 정리돼 있죠, 지금과 같은 도시계획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기에 거대한 정수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장은 1899년에 만들어져 1950년대까지 도꼬 시내에 수돗물을 공급했다.

하지만 도시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1955년, 도꼬도는 야심찬 부도심 건설 계획을 내놓으며 정수장을 이전하고 이 자리에 빌딩가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60년 공사가 시작해 1971년에 첫 고층 빌딩이 케이오 플라자호텔이 문을 연다. 이후 고층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데, 그 데미를 장식한 건물이 바로 도꼬도청이었죠(1991년 완공), 지금 이일대에는 높이 100m를 넘는 건물이 18동(棟)이나 모여 당당한 도꼬의 지붕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길 찾기도 무척 수월한테, 이유는 거리 곳곳에 자세한 그림 안내판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디서나 보이는 초대형 이정표 도꼬도청이 떡하고 버티고 선 까닭에 길 잃을 염려는 제로가 가깝다, 혹시라도 길이 헤맬 듯싶으면 고개를 들어 동그란 기둥 모양의 도꼬도청을 찾으면 될 것 같다.

12. 도꼬도청

명실상부한 신쥬꾸의 상징, 도꼬도 동경군를 총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도꼬의 사령탑 같은 3동(동)의 건물이다. 건물 아래에 서면 숨막히는 위압감이 들 정도로 아찔한 높이와 딱딱한 듯하면서도 세련된 외관이 특징이다. 높이는 해발 243m로 일본에서 여섯 번째, 신쥬꾸에서는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이다.
건물1층에는 도꼬의 행정과 역사에 관한 자료를 전시한 홀이 있다.

이것이 이 건물에 대한 판에 박인듯한 설명 하지만, 이 사실은 몰라도 그만인 내용, 실질적인 정보는 남・북쪽 타워의 45층, 높이220m 지점에 신쥬꾸에서 시야가 가장 넓은 무료 전망대가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전말대행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는 곳은 1층 좌우에 있다. 정문으로 들어갈 때 왼쪽이 남쪽타워 오른쪽이 북쪽타워행 엘리메이터이니 마음에 드는 쪽을 골라서 이용하도록 불과 55초면 전망대에 도착하는데 타고 올라가다 보면 급속한 기압차로 귀가 멍해질 정도다.

도꼬도청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신쥬꾸의 빌딩가와 도꾜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광경이 펼쳐진다. 게다가 운이 굉장히 좋으면 눈덮인 후지산의 모습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날은 1년에 며칠 될까 말까해서 일본 사람 조차도 그 모습을 보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 안 보여도 실망하지 않게된다. 이곳은 공짜 야경 포인트로도 유명하다. 겨울에는 17:00전후, 여름 무렵에는 20:00전후에 가면 보석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신쥬꾸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전망대에는 각종 음료와 먹 거리를 파는 카페가 있으니 해질녘까지 여기서 시간을 때우는 것도 좋다.

13. 도꾜의 코리아타운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곳은 신오꾸보 新大久保 아까사까의 미스지도리, 우네노의 키무찌요꼬쬬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신쥬꾸에서 야마노떼센으로 한 정거장 거리(신쥬꾸에서 도보 15분)의 신오꾸보! 여기서는 일본어보다 우리말이 더 잘 통한다고 할만큼 한국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민박·식품점·식당·PC방·약국 등 한인 업소가 잔뜩 모여 있죠.

덕분에 우리나라 라면은 물론 각종 반찬류까지 살 수있고, 식당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먹던 것과 똑같은 음식을 맛볼 수 있답니다. 물론 한끼에 1,000엔 전후하는 음식 값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참고로 한국인 식당과 식품점이 가장 많이 모인 거리는 신쥬꾸와 신오꾸보 사이의 쇼꾸안도리. 한국 음식점이 한 집 건너 한 집일 만큼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 일본인도 원조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즐겨 찾는 지역이다.

14. 일본오락사업의 현주소, 오락실과 빠찡코

전자 산업의 메카인 일본에서 오락실, 즉 게임센터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평범한 수준의 게임 센터부터 유명 게임 제작사에서 직영하는 대형 실내 테마 파크까지 다양다종한 형태로 존재한다.

초기에는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악한 시설로 영업하는 곳이 많았으나, 게임 센터의 양성화와 게임 산업의 부흥으로 시설이 개선돼 지금처럼 화려하고 깔끔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게임 센터 가운데에는 동전이 아닌 업소 전용 코인으로 게임을 하는 곳도 있죠. 이런 시설은 대부분 도박장과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출입을 제한합니다.

일명 '구슬따기 게임으로 불리는 빠찡꼬 는 일본 오락 산업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오전 10시쯤부터 자정 무렵까지 영업하는 빠찡꼬 업소는 가방을 둘러멘 학생부터 장바구니를 든 아줌마까지 온갖 사람들로 북적대는데, 기계 앞에 앉아 경쟁적으로 버튼을 돌리고 누르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오전에 문 열 때쯤 가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긴 줄을 늘어선 모습이 쉽게 눈에 띄죠.

15. 마루노우찌

도꾜 한복판에 위치한 마루노우찌는 일본을 움직이는 각종 관공서와 대기업 본사로 무장한 실질적인 일본의 심장부다. 그래서인지 도꾜의 다른 지역이 흘러넘치는 사람들로 생동감을 주는 반면, 이곳은 일왕의 거처인 고꾜 皇居를 중심으로 넓게 조성된 왕실 정원과 삐죽삐죽 솟은 대형 건물이 약간의 위압감을 선사한다.

하지만 조금만 걸어가면 이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의 일본 최대 번화가 긴자가 각종 쇼룸과 백화점을 내세워 여행자의 발길을 유혹한다.

16. 야스꾸니 신사

메이지유신이 단행될 당시 내전에서 전사한 정부군의 영온을 달래고자 1869년에 세운 신사다. 때문에 초기에는 쇼꼰샤 라고 불리었으나 1979년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겉모습은 다른 신사와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곳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사뭇 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 뒤 개정된 일본 헌법은 군사 재무장 금지,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를 명시하고 국제 평화를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행동은 여러 차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대로 군사 대국 일본을 꿈꾸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인지 197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 14명의 위패까지 옮겨 놓고 신으로 승격시켰다.

정치가들이 얼마 전까지는 비공식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약간의 눈치라도 보는듯 하더니 이제는 아예 드러내 놓고 공식 참배하면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야스꾸니 신사 참배 문제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자극하고 있다. "평화로운 나라" 라는 뜻의 야수꾸니라는 이름과 상반되게, 전쟁의 화신을 추모하는 모습이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신사 옆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각종 무기와 유품을 아주 자랑스럽게 전시해 놓았는데, 이 가운데에는 전쟁 때 죽은 군견(軍犬)과 군마(軍馬)의 영혼을 달래는 위령비까지 세워져 있다. 하지만 아무리 눈 씻고 둘러봐도 전쟁으로 수없이 죽어 간 무고한 영혼을 달래는 추모비는 찾아볼 길 없다.

야스꾸니 신사 정면으로 뻗은 참배로에는 근대 일본 육군의 창설자로 야스꾸니 신사의 창건에 지대한 공을 세운 오무라 마스지로 大村益次郎의 동상, 전사자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 높이 25m의 대형 청동 오도리이 大鳥居 등이 세워져 있다.

17. 유슈깐

1883년에 세워진 일본 최최의 군사 박물관이다. 내부는 19세기 이후 일본이 국내외에서 일으킨 각종 전쟁과 관련된 자료・무기・유물로 채워 놓았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대동아전쟁으로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의 전시물이 그득하다. 유슈깐이라는 이름은 '고결한 인물을 본받는 곳'을 뜻한다는데, 과연 제대로 된 과거사를 배울 길 없는 일본의 학생들이 여기서 무엇을 본받을지 궁금할 뿐이다.

18. 키따노마루 공원

에도 江戸성의 키따노마루 유적인 이곳은 왕실 정원의 일부였으나 지금은 일반인에게 자유로이 개방하고 있다. 푸른 잔디와 연못에 둘러싸여 있으며 찬바람 부는 겨울만 아니라면 조깅하는 사람이나 가족끼리 놀러 온 행락객으로 늘 붐빈다. 공원 안에는 도꾜 올림픽 때 유도장으로 만든 니혼부도깐 日本武道館이 있는데, 지금은 각종 스포츠 행사난 국내외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으로 활동된다.
1990년대 초반을 주름잡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일본 콘서트로 바로 여기서 열렸다. 공원 한쪽에는 과학 기술관 科学技術館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건물도 있다.

전시물은 물리・우주・기계・과학의 이해를 돕는 자료와 모형, 그리고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는 체험형 학습 기구 등이다. 하지만 시설이 워낙 낡은데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는 큰 재미 보기는 힘들 듯이 조금 떨어진 곳에는 조각・도자기 등의 공예품을 전시하는 도꾜 국립 미술관 공예관 東京国立美術館工藝이 있다. 이것은 원래 메이지 시대에 세워진 근위사단 사령부 건물, 내부 전시물은 시시하지만 빨간 벽돌로 만들 건물은 무척 근사하다.

19. 신사 앞마당에 도리이가 세워져 있는 이유

일본 전역의 신사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입구에 '天'자 모양의 이상한 문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신사가 일본의 신을 모시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신에게 인간의 뜻을 전할 방법도 있어야겠다.
오래 전부터 일본인은 새를 신의 사신으로 믿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신에게 전달해 줄 매개체인 새가 쉬어 갈 장소를 신사 앞마당에 마련하게 됐다. 그게 바로 도리이 鳥居라는 '天'자 모양의 조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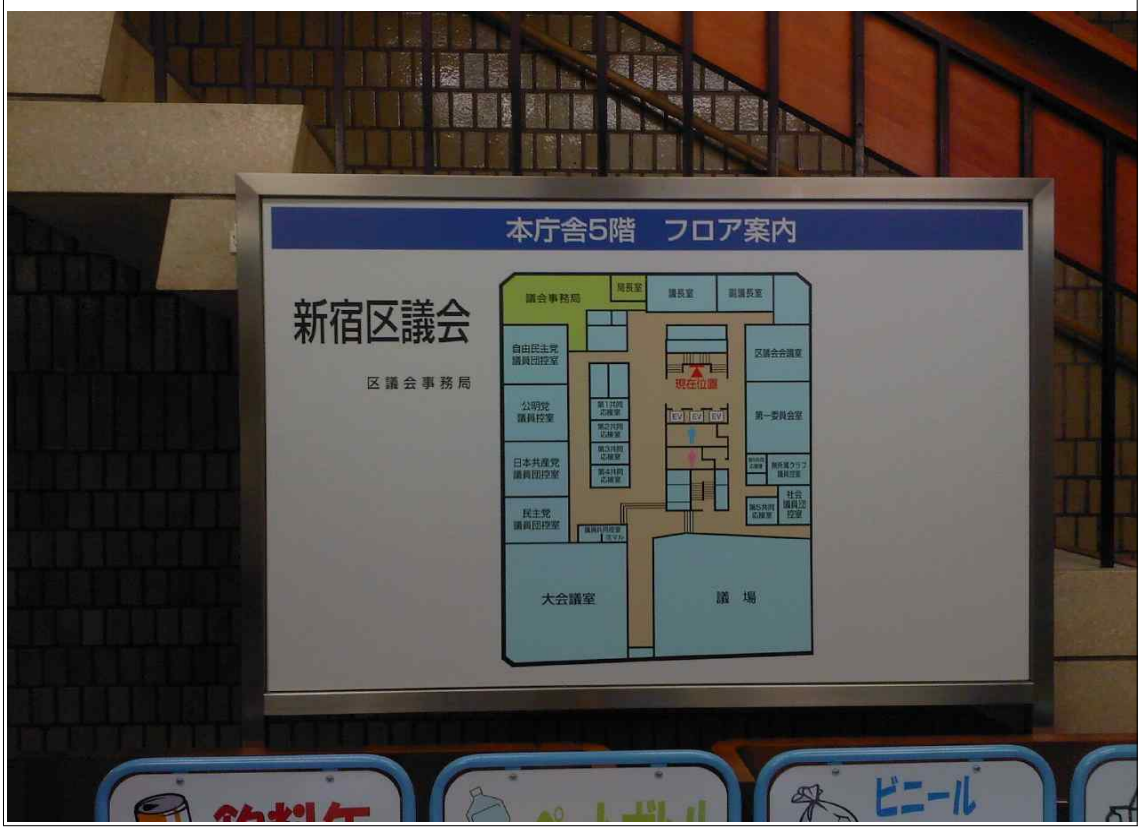
20. 국회의사당

일본의 국정을 논하는 장소이다. 3만 톤의 화강암과 대리적으로 만들어져 육중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1920년에 착공해 완공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17년.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제감정기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연 인원 200만 명이나 되는 한국인이 강제 노역을 했다는 것이다. 건물의 외관만으로도 경복궁 앞에 세워져 있던 육중한 구 중앙박물관 건물이 연상되는 마당에 이런 사실(史實)까지 생각하면 누구든 끓어오르는 민족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 것이다.

건물의 정면 외쪽이 중의원(衆議院), 오른쪽이 참의원(參議院)이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견학 신청을 해야 한다. 건물 내부의 중앙 홀 오른쪽으로는 국사 시간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던 조선 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 伊藤博文의 동상과 함께 4개의 동상 받침대가 있다.

이 중 3개의 받침대에만 동상을 세웠고 나머지 한 군데는 비워 놓았는데,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이 위에 그의 동상을 세울 것이라고 한다.

新宿区役所　新宿区議会


本庁舎5階　フロア案内
新宿区議会
区議会事務局
議会事務局
局長室
議長室
副議長室
自由民主党議員団控室
公明党議員控室
日本共産党議員団控室
民主党議員団控室
区議会会議室
現在位置
第一委員会室
大会議室
議　場
ビニール

21. 형식을 중요시 하는 일본의 전통 예술

어느 나라 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들만의 전통 예술을 봐야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예술로 손꼽히는 것은 카부끼 歌舞技・다도 茶道・노能・라꾸고 落語・분라꾸 文樂 등으로,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내용에 비해 형식을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점이죠. 한 예로 다도에서는 차를 마신다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마시기 위해서 치르는 각종 예법을 가장 중요시한답니다.

카부끼는 일본을 대표하는 예술 가운데 첫째로 꼽히며, 대부분의 일본 소개 자료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사진을 볼 수 있죠. 갖가지 화려한 의상과 분장으로 치장한 배우들이 가곡의 형식을 빌려 진행하는 모습에서 일본 색채가 강하게 풍깁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취향에 맞지 않고 너무 따분하다는 이유로 신세대에게는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17세기 중반 토꾸가와 바꾸후에서 여성의 출연을 제한하면서부터 카부끼에 등장하는 모든 역할을 남자가 맡게 됐다는 거다.

노는 일본 전통 연극의 한 종류로, 7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타찌가따 立方라는 무용수와 하야시가따 雜者方라는 악사가 연기하는 이 가극은 신또를 바탕으로 한 종교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꾸고는 1명의 연기자가 나와서 관객을 대상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으로 기모노를 입고 방석에 앉아서 진행하죠.
바꿔 말하면 일본의 전통적인 모노 개그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한복 입은 진행자가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정월 초하루면 TV 쇼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라꾸고 연기자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인형극 분라꾸는 사람 키의 반 정도 되는 정교하게 만든 인형을 세 사람이 나눠서 조종하며 극을 이끌어 갑니다.

전통 악기 샤미센의 음률에 맞춰 진행하며 인형의 정교한 몸놀림이 볼 만하죠. 하지만 카부끼와 마찬가지로 신세대에게는 찬밥 신세입니다.

22. 오디이바

원래 시나가와다이바 品川台場라고 불리던 오다이바는 19세기 중반 서양 함선의 침입을 막기 위해 대포를 설치한 인공섬 이었다.
이후 오랫동안 버림받아 온 이 땅은 신도심지를 물색하던 도꾜도 東京都의 눈에 띄었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투입돼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모습의 오다이바로 탈바꿈했다.

최근 개발된 곳답게 오다이바에는 넓고 쾌적한 공원,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한 각종 그린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게다가 세련된 쇼핑센터와 각종 전시장이 속속 들어서 여행자의 발길을 재촉한다. 데이트 코스 1순위로 오다이바를 꼽는다는 사실만 봐도 이곳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3. 오다이바 해변공원

오다이바의 해안을 따라 조성한 인공 해변이다. 해변을 따라 백사장과 산책로가 길게이어지며 벤치·매점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여름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도 많다.
해가 지면 울긋불긋 도꾜만을 수놓는 불빛과 레인보우 브리지의 환상적인 야경을 두눈 가득 담을 수 있어 산책과 데이트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해변을 따라 레인보우 브리지 쪽으로 400~500m 가면 예전에 포대가 있던 다이바 공원 台場公園이 나온다. 안에는 대표가 놓였던 자리와 건물터 등이 남아 있으나 큰 볼거리는 없다.

24. 레인보우 브리지

도꾜 도심과 오다이바를 연결하는 길이 800m의 현수교, 초속 67m의 강풍과 75년에 한번 씩 발생하는 초대형 지진에도 끄덕없게 만들어진 토목 공학의 진수다. 다리를 지탱하는 두개의 탑은 높이 120m로 40층 건물 높이와 맞먹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 탑의 기저부 간격은 570m이지만, 꼭대기의 간격은 11㎝가 젊은 570.11m라는 것. 이유는 지구 표면을 따라 다리가 둥그랗게 휘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리를 지탱하는 케이블은 6만 5,278가닥의 강철선을 꼬아서 만든 것인데, 한줄로

이어 놓으면 도꾜~뉴욕을 1.5회 왕복(3만 1,000㎞)하는 길이다.
다리 양쪽에는 보도교가 있어 레인보우 브리지를 걸어서 건널 수 있다.
건너편까지는 40분 정도 걸리며 입구는 다이바 공원 옆에 있다.

25. 덱스 도꾜 비치

오다이바 해변 공원과 나란히 붙어 있는 쇼핑센터, 시 사이드 몰로 나뉘어 있다.
취급 품목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영캐주얼・아웃도어 의류・캐릭터 상품・인테리어 소품 등 아일랜드 몰 6・7층에는 형형색색의 간판으로 뒤덮인 홍콩의 거리를 완벽히 재현한 다이바쇼 홍콩 台場小香港이 있다.

홍콩에서 직수입한 의류・소품을 파는 상점과 중국 음식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마치 홍콩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심지어는 소음과 냄새까지도 그대로 재현했을 정도다.

시 사이드 몰 4층에는 이와 비슷하게 일본의 1950~1960년대 거리를 재현한 다이바잇쪼메쇼뗀가이 台場一丁目商店街가 있다.
옛날 사진 속에서 툭 튀어나온 듯한 모습의 상점가에는 구식 장난감과 불량식품(?) 등이 가득해 구경하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하다.
잘 찾아보면 깜찍한 액서서리나 적당한 가격대의 기념품도 장만할 수 있다.

26.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은 미숙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뉴욕주에 선물한(1886년)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에 맞춰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은 크기의 미니(?) 자유의 여신상을 파리시에 기증했다.

일본은 1998~1999년에 그 기증본을 빌려다 여기에 전시했는데, 반환에 즈음해 돌려주기가 무척 서운했는지(?) 결국은 복제품을 만들어 세우게 됐다.
바로 옆에는 벤치가 놓인 전망 테라스가 있으며, 여기서 보는 레인보우 브리지의 야경이 무척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27. 후지 TV 본사

오다이바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첨단 스타일의 건물, 2000년 후지 TV의 공식 캐릭터로 지정된 파란색의 라후 인형이 곳곳에 놓여 있으며, 1층과 7층의 광장에서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각종 이벤트가 열린다. 길이 96.5m의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는 5층의 스튜디오 프롬나드는 쇼・드라마 촬영 모습을 볼 수 있는 방송국 견학 코tm. 그러나 공짜인 만큼 큰 볼거리가 없다.

25층의 구체(球體) 전망대에서는 도꾜만과 레인보우 브리지의 멋진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에니메이션 마니아라면 7층의 기념품 매장도 놓치지 말자. 원피스・드래곤볼・찌비마루꼬쨩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인기 캐릭터 상품이 가득하다.

28. 선박 과학관

외관을 거대한 선박 모양으로 만든 특이한 형태의 박물관, 1층에는 정교한 선박 모형과 함께 항해사(史)를 설명하는 코너, 웅장한 음악・영상을 선보이는 마린 시어터, 그리고 선박의 건조 과정을 소개하는 코너 등이 있다. 2・3층에는 컨테이너 선박과 모터보트에 대해 소개하는 코너와 과거 일본의 선박 역사를 보여

주는 모형 전시실이 있다. 무선으로 모형 선박을 조종해 보는 코너도 흥미롭다. 7층은 오다이바 일대가 내려다 보이는 높이 70m의 전망탑이다.
무료로 개방된 야외 전시장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전함의 주표, 미니 잠수함, 대형 스크류 등이 전시돼 있다.
부둣가에 정박된 두 척의 배는 22년 동안 아오모리~하꼬다떼 구간을 오가던 연락선 요떼이마루 羊蹄丸호와 일본 최초의 남극 관측선으로 유명한 소야宗谷호다. 사용 당시의 모습이 고스난이 보존된 선박 내부는 현재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29. 일본 과학 미래관

정보과학 기술과 사회, 기술혁신과 미래, 생명과학과 인간, 지구 환경이라는 4개의 테마로 다양한 전시물을 보여 주는 과학 박물관이다. 첨단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마이크로 로봇, 나노 기술 등 21세기를 지향하는 일본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볼 수 있다. 6층의 돔 시어터에서는 디지털 영화와 레이저 쇼를 상영한다.

30. 도꼬모 타운

핸드폰 업체인 NTT 도꼬모의 쇼룸. 동화속 나라처럼 컬러풀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민 실내가 무척 인상적이다. 주요 전시물은 핸드폰과 통신에 대해 소개하는 것들. 게임기기는 물론 NTT의 최신형 핸드폰과 주변 기기도 조작해 볼 수 있다. 전망이 좋아서 창밖으로 오다이바 일대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도꼬모 타운을 등지고 왼쪽으로 가면 오다이바 일대의 멋진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텔레콤 센터 전망대도 있다.

31. 도쿄 빅사이트

서울의 COEX에 비견되는 일본 최대의 국제 전시장으로 은색의 독특한 외관이 이상적이다. 총 10개의 전시홀에서는 다양한 전시회가 열린다.

유리까모메 고꾸사이뗀지죠쇼몬역에서 도쿄 빅사이트로 가는 도중에는 높이 15m 남짓한 대형 톱이 땅바닥에 꽂혀 있는데,
이것은 1995년에 클레이스 올덴버그 Claes Oldenburg와 코셔 반 브루겐 Coosje van Bruggen이 만든 <톱・톱질하기 Saw・Sawing>라는 작품이다.

32. 파나소닉센타

미래 생활 체험과 환경친화 제품을 컨셉으로 꾸며진 쇼룸. 내부는 총 7개의 테마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입구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ID 카드를 발급 받으면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층의 주요 볼거리는 닌텐도의 최신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닌텐도 게임 프론트, 각종 가전제품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니은 투머로우 Tomorrow, 노트북 컴퓨터・캠코더・디지털 카메라・PDP TV 등 파나소닉의 최신 가전제품이 가득한 투데이 Today 등이다.
2층의 환경 쇼 케이스에서는 주방・욕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친화 가정 제품과 자원재활용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제일 안쪽의 박물관 코너는 10m 높이의 대형 공룡 화석이 전시된 디노사우르 팩토리 Dinosaur FACTory. 파나소닉 센터에서 유일한 유료 전시관인데, 공룡과 지구의 관계를 최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로 소개한다.

33. 물의 과학관

수도국에서 운영하는 홍보관. 전반적으로 어린이 취향의 볼거리로 채워져 있다. 물을 활용하는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2층에서는 엄청난 수압으로 물건을 자르는 워터 제트, 해수 담수화 장치 등을 보여 준다.

옆 전시실에는 차분한 조명과 음악을 즐기며 쉬어 갈 수 있는 휴게실,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의 양과 용도를 알아보는 코너 등이 있다. 3층에는 정신없이 흔들리는 자리에 앉아 박진감 넘치는 영화 한 편을 즐기는 아쿠아 플래닛 극장이 있으며, 지하에는 이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급수 이설을 돌아보는 견학 코스도 있다. 종종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하는데 참가하면 조그만 기념품을 준다.

34. 하수도관

하수도의 역할과 물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는 홍보관이다.
4개의 전시실에서 하수도의 개발 과정과 물의 재활용 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 하수도에서 나온 오니(汚泥)를 사용해서 만들 벽돌・타일・도자기와 지금까지 도꾜도에서 사용한 각종 맨홀 뚜껑도 전시한다. 전반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며 규모가 작아 큰 볼거리는 없다. 7층에 조그만 무료 전망대가 있다.

35. 광고 박물관

에도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광고사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눈에 띄는 전시물은 1900～2000년대의 광고 포스터, 그리고 당시의 신문·잡지·생활잡화 복제품이다.
제일 안쪽의 라디오·TV CM 에서는 1950년대 이후의 걸작 광고 수천편을 열람할 수 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모니터를 조작하면 화면과 음성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지금 봐도 기발하고 재미난 광고가 무척 많다.

36. 칸다

이 일대는 130여년 전까지만 해도 무사의 저택이 늘어선 거리였다.
메이지시대에 그 집들을 대학으로 전용하면서 쥬오대학, 니혼대학등 일본 유수의 대학이 위치한 대학가로 변모했고, 오늘날 쇼핑가의 원점이 된 고서점가가 등장했다. 근래에 들어서는 비싼 땅값 때문에 메이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교외로 이전했는데, 이후 등장한 것이 바로 칸다의 상징으로 통하는 고서점·악기·스포츠 용품 상가, 그리고 일본 최대의 전자상가 아끼하라바다.

37. 2.8 독립선언 기념비

3.1운동보다 한 달 정도 앞선 1919년 2월8일, 도꾜의 재일 유학생들이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이 '2.8독립선언' 이다.

당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곳이 기독교 청년회관, 즉 지금의 아시아 유스센터 한국 YMCA였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고자 정문 앞에 기념비를 세웠다.

38. 유시마 성당

성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톨릭 성당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다. 1690년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타이세이덴을 짓고 논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연 것이 이곳의 시초다.

내부에는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는 검은 문과 낡은 건물 몇 채, 그리고 3m 정도 되는 커다란 공자상이 있다. 특별한 볼거리는 없지만 조용히 쉬어 갈 만하다.

39. 종교도 다다익선

일본인이 믿는 주요 종교는 신또 · 불교 · 기독교 등입니다. 전체 신자 수는 신또가 1억 2,000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불교 9,000만 명, 기독교 150만 명, 기타 1,300만 명이죠.

흥미로운 점은 전체 신자수를 모두 합치면 2억 2,450만 명으로 일본 전체 인구 1억 2,700만 명의 두 배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본인은 둘 이상의 종교를 믿으며 살아가는 셈이죠.

실제로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탄생과 결혼은 신또 의식, 장례는 불교 의식을 많이 따릅니다.

기독교는 신자 수가 매우 적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일본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면(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님) 일본의 국교가 기독교인 듯한 착각에 빠질 만큼 전국이 축제 무드에 휩싸이죠.
이런 분위기 탓인지 젊은이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근사한 교회에서 결혼하기를 무척 원한다고 하네요.

40. 교통박물관

입구에서 신깐센과 D-51 증기 기관차가 방문자를 맞이하는 박물관. 실물과 모형을 통해 육해공의 모든 교통수단을 소개한다. 1층은 일본 전역을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하고 있는 철도에 관한 전시실로 실제로 작동되는 철도 모형이 흥미롭다.

2층에는 배의 모형과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 벤츠1호, 3층에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등이 전시돼 있다. 주고객이 견학 나온 초등학생이라 조용히 관람하기는 조금 힘들다.

41. 토요따 암럭스

일본의 자동차메이커인 토요따의 쇼룸. 지하1층부터 4층까지 테마별로 자동차를 전시한다. 지하 1층에는 카페 · 게임 시설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이벤트 스테이지가 있다.
1층은 환경과 안전을 테마로 신형 자동차 · 콘셉트 카를 전시하는 코너, 안내 카운터 옆의 반구형 영화관에서는 30분 간격으로 단편 영화를 상영하는데 현장감 넘치는 영상을 보여 주기 위해 움직이는 좌석이 설치돼 있다.
공짜니까 부담없이 관람하자. 주변에는 컴퓨터 게임 코너도 있다.
2층은 RV카를 중심으로 한 아웃도어 라이프 코너다. 자동차는 물론 관련 서적·잡지를 열람할 수 있는 조그만 휴게실도 있다.
3층은 승용차 · 밴 전시장이며 자동차 관련상품 및 판매 코너가 있다.
4층의 고급 중형차 전시장은 호텔 로비처럼 우아한 분위기로 꾸며놓은 게 특징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즐거운 사실은 대부분의 차를 직접 시승해 볼 수 있다는 것.

42. 고대 오리엔트 박물관

세계최고의 문명이라는 고대 오리엔트 문명을 소개하는 미니 박물관 9개의 테마부스로 나누어 유물을 전시한다.
대표적인 볼거리는 40만 년 전의 돌도끼, 4,000년 전의 설형문자판, 2,300년 전의 알렉산더 대왕의 은화 등이다. 규모가 작아 전시품이 많지는 않다.

43. 이끼부꾸로 방재관

지진 · 화재 등의 재난에 대처하는 요령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이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있게 한것이 특징. 지진코너에서는 진도 5의 지진이 났을 때 집안에서 몸을 보호하는 법, 연기 코너에서는 연기로 가득한 건물을 탈출하는 법, 소화코너에서는 소화기로 불 끄는 법 등을 가르쳐준다.

44. 와세다 대학

이께부꾸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본의 양대 사립 명문 가운데 하나인 와세다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전신은 1882년에 개교한 도꼬 전문학교. 와세다로 이름을 바꾼 것은 1902년의 일이죠.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답게 학풍이 곧고 강직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점은 사립 명문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케이오 대학의 우아하고 세련된 학풍과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45. 와세다 대학에는 정문이 없다

이 대학 캠퍼스의 가장 큰 특징은 '문' 이 없다는 것, 정문이라고 해봐야 7개의 계단이 전부인데, 이 때문에 정문을 가리켜 무몬노몬 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설립 취지인 '열린 대학' 을 표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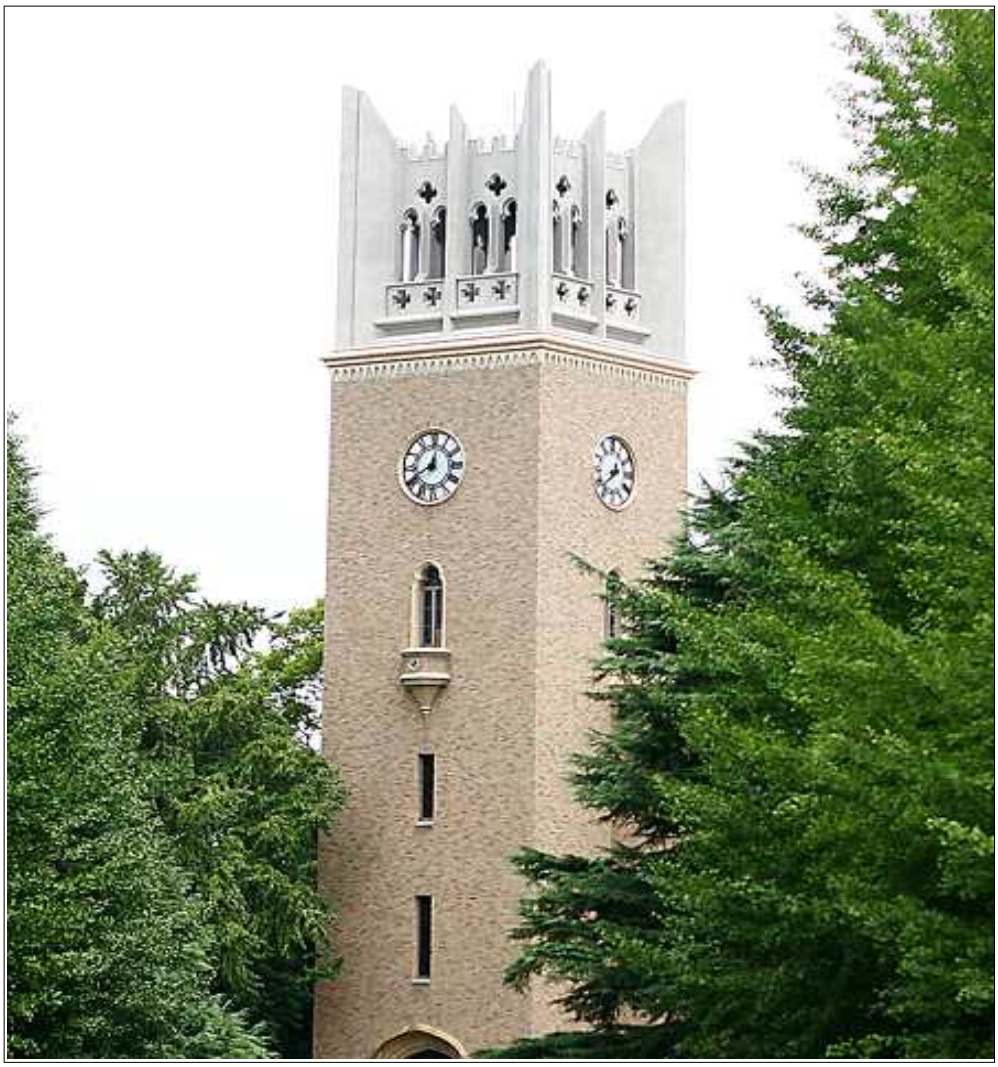
'어떠한 학문적 사상도 거부하지 않는다.' 는 이념을 상징하는 것이죠.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면 대학의 설립자인 오꾸마 시게노부의 동상이 보입니다. 그는 1800년대 말 정계의 재야 지도자로 무척 유명했죠.
이 앞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영국의 셰익스피어 극장을 흉내내서 만든 역극 박물관이 있다.

46. 와세다 대학의 상징 오꾸마 강당

다시 정문으로 돌아나오면 우뚝솟은 벽돌 건물이 보입니다. 오꾸마 시게노부의 공적을 가리고자 1927년에 세운 오꾸마 강당 이다.

구석구석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데 우선 시계탑 부분을 보세요. 사방 어디서 보나 'W'자 모양이 선명합니다. 이는 와세다 대학의 알파벳 첫 머리 글자죠. 강당에 있는 6개의 문에도 WASEDA라는 글씨가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주위를 장식한 꽃무늬는 오꾸마 가문의 문장이다.

건물 높이는 125척, 미터로 환산하면 38m입니다. 이는 오꾸마 시게 노부가 인간의 원래 수명은 125세라고 얘기한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47. 저렴한 식당가와 전차 도덴 아리까와센

와세다 대학 주변은 비싼 물가에 지쳤을 때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한다.

서울의 대학가와 마찬가지로 와세다 대학 주변의 식당은 학생을 상대하는 곳이라 먹 거리나 마실 거리가 시내에 비해 저렴하죠. 싼 음식점과 주점이 모인 곳은 동문, 근처인데. 한국식당도 여럿 있습니다. 점심때 런치 스페셜을 이용하면 500~600엔에 한 끼 배불리 먹을 수도 있죠.

동문에서 도보 5분 거리에는 도꾜의 옛 풍물 가운데 하나인 도덴 아라까와센의 종점이 있다.

1900년대 초부터 달리기 시작한 전차인데 달랑 한 칸뿐인 차량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모습이 무척 재미있다. 여기서 출발한 전차는 선샤인 시티 뒤쪽을 돌아 싸구려 숙소가 모인 미나미센쥬의 미노와 까지 간다.

48. 도꾜 국립 박물관

우네노에서 가장 핵심적인 볼거리이다.

91개의 국보와 616개의 중요문화재를 포함한 10만 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전시할 수 없어 1~2개월에 한 번씩 전시품을 교체한다. 보통 일반에 공개되는 문화재의 숫자는 2,500점정도.

박물관의 핵심 볼거리는 본관, 동양관, 호류지 보물관등 3개 전시관이다.

본관은 일본의 역사 · 미술 · 공예 · 민속자료를 전시하는 곳으로 규모가 크고 전시품이 많아 관람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

동양관에서는 한국 · 중국 · 동남아 · 인도 · 이집트 등에서 수집한 미술·공예·고고학 유물을 전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한반도의 유물이 유리관 안에 고이 모셔져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나 한 번쯤 의심하게 된다. 참고로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물은 20세기 초에 들여온 이집트 미라다.

호류지 보물관에서는 나라의 호류지에서 가져온 7~8세기의 보물 300여 점을 전시한다. 대부분 불상 · 회화 · 직물 등의 불교 미술품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 더욱 의미가 깊다. 그밖에 기획전이 열리는 헤이세이깐과 도서 · 사진을 전시하는 자료관도 있으나 일반인에게는 재미가 없는 곳이다.

49. 도쿄 과학 박물관

자연과학에 관심 있는 여행자에게 추천할만한 곳. 지하3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어지는 6개 층에 걸쳐 수만 점에 달하는 다채로운 자료와 화석이 전시돼 있다. 규모가 상당히 커서 관람에 서너 시간은 족히 걸리니 시간 여유를 넉넉히 두고 가는 게 좋다.

지하 3층은 자연계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지하 2층은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한 생명체와 진화의 과정, 지하1층은 공룡 탄생과 멸종의 미스터리, 1층은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 2층은 에도 시대 이후 일본에 도입된 서양 과학 기술의 발전 과정, 3층은 300여 종의 포유류 · 조류 박제 전시를 테마로 꾸며져 있다.

이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곳은 지하2층과 지하1층 전시장이다. 지하2층에는 거대한 매머드와 집채만한 크기의 양서류 화석을 비롯해 일본에서 제일 큰 지름 1m짜리 암모나이트 화석 등 수 천여 점의 화석이 가득하며, 지하 1층에는 초대형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을 필두로 완벽한 골격을 갖춘 14개의 공룡 화석이 전시돼 있다. 공짜로 볼 수 있는 야외 전시장에는 일본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로켓, 길이 30m의 고래모형, 1939년에 제작된 증기 기관차 등이 전시돼 있다.

50. 국립 서양 미술관

로댕 · 반다이크 · 모네 · 파카소 등 유명 작가의 회화와 조작 4,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본관에서는 로댕의 조각과 중세 말기에서 18세기 말까지 활약하던 작가의 회화를 전시하며 신광에서는 미술관의 창설에 기여한 마쯔까따 유끼지로 의 수집품을 중심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프랑스 근대 회화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작품을 전시한다.

특히 유명한 작품은 모네의<수련>, 르누아르의 <모자를 쓴 여인>, 로댕의<생각하는 사람> · <지옥의 문> · <칼레의 시민> 등이다.

로댕의 세 작품은 공짜로 볼 수 있게 야외에 전시돼 있다.

51. 구 도교 음악 학교 소라꾸도

1980년 도꾜 음악학교(현 도꾜 예술대학)본관으로 지어진 일본 최초의 콘서트홀이다. 겉모습은 일반 목조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음향 및 방음 설비를 완벽히 갖추었다.

홀에는 1987년 건물 이전 당시 설치한 일본 유일의 공기식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

52. 국제 어린이 도서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아동 도서만 전문으로 다루는 도서관이다.

잡지 · 교과서는 물론 전 세계의 그림책과 설화집도 열람할 수 있다.

건물 구경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외관이 무척 멋지다.

원래 이 건물은 1906년에 제국 도서관으로 짓기 시작했다. 애초의 계획대로라면 동양 최대의 도서관이 될 뻔했으나, 전쟁으로 인한 국가 재정 고갈로 인해 전체의 1/4만 지어진 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오랫동안 국립 국회 도서관으로 이용되다가 지난 2002년 내부 수리를 거쳐 지금의 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

결 론

토쿄 나리타 국제공항은 실은 도쿄에 위치하지 않는다. 실제로 치바 현에 위치하고 토쿄의 도심까지는 2시간가량 소요된다. 토쿄의 인구는 1200만 정도로 서울과 비슷하지만 크기는 멕시코시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이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의외로 적고, 특히 음식점일수록 대부분 카드 사용이 안 되는 현금 지불이므로 먹을거리에 치중하는 이라면 현금을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혼욕 온천은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만나기 어렵다. 그리고 각 온천의 노천온천은 요일별 또는 시간별로 남탕과 여탕이 바뀌므로 주의해야 한다.

토쿄의 택시는 자동문이라 손님이 직접 문을 열거나 닫지 않는다. 수동으로 열고 닫으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택시를 이용할 때는 절대 문을 직접 열거나 닫지 않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일본의 아파트는 발음은 같으나 그 의미는 다르다.
벽이 구조벽이 아닌 가벽으로 방음방한이 열악한 2층 정도의 집합 주택을 아파토(아파트)라 부르고, 우리가 상상하는 3층 이상의 튼튼한 구조를 가진 집합 주택은 만숀(맨션)이라 부른다.

토쿄는 콘비니(편의점)가 발달되어 있어 우리나라보다 위생적이고 신선한 음식들이 많다. 계절별로 한정 식품을 팔기도 하고 각 콘비니별 특징이 있는 제품도 많이 있다. 그중 부동의 1위는 세븐일레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는다 하면 돼지고기지만 일본은 대부분이 쇠고기를 생각한다.

근 미래적 숙박 시설로 유명한 캡슐 호텔은 실제로는 남성 전용이다. 1박에 3600엔. 유학생이나 관광객에게는 유명한 '100엔 숍' 은 저가로 좋은 물건도 간혹 있지만, 드라이버나 가위 같은 공구류는 금방 망가진다.

토쿄의 공사 중인 지역 근체에 있는 대부분의 음료 자판기는 100엔으로 저렴한 편이다. 토쿄에 있는 대부분의 숍은 오후 8시면 거의 문을 닫는다. 또한 연중무휴라 해도 1월 1일 전후하여 3~4일간은 전부 휴일이다.

일본에서는 졸업 시즌이 3월, 새학기의 시작이나 입학 입사 시즌이 4월로 우리보다 한 달 정도 늦다. 유명한 라면집이나 스시집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길게는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도 맛이 있다면 다들 불평 없이 기다려 먹는다. 줄 서는 문화야 일본인의 못 말리는 습성이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존재를 일본인도 알고 있다. 하지만 코-쿠리, 쿠다라, 시라기, 카라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일본의 국가인 스모의 체급 선수는 대부분이 외국인이다. 몽고, 불가리아, 러시아, 한국 등의 선수가 이름을 날리고 있다. 참고로 스모의 계급은 최고의 지위 요코즈나를 시작으로 오오제키 세키와키,코무수비 순이고 그들을 포함한 막쿠노우치가 상위 리그, 그 밑에 쥬료가 하위 리그다. 1년에 6회 15일간 전국을 순회하며 경기를 한다. 일본 전국에서 토쿄의 결혼 연령이 제일 늦다.

스시는 원래 거리에서 팔던 음식으로, 나오는 즉시 먹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니까 술안주 삼아 이야기 하면서 앞에 두고 먹는 음식이 아니다.

토쿄는 각 구마다 지정된 금연 구역이 많다. 예를 들면 토쿄 역 아키하바라, 유라쿠쵸 등이 있는 치요다구에서는 거리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벌금은 2000엔이다.

시부야 젊은이들의 쇼핑 명소 109는 이치마루큐 또는 마루큐라고 읽는다.

하지만 모기업은 친절로 유명한 토-큐-,토-와 비슷한 발음인 10을 의미하는 토오와 큐-와 동음인 9를 의미하는 큐-를 합성해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토쿄진 중에서도 이 이름의 유래를 아는 이는 드물지 싶다.

토쿄 최고의 묘지인 아오야마 묘지에는 시부야 옆 앞으로 유명한 동상 충견 하치코의 묘지도 있다. 토쿄 각 전철역과 전철 내부에서 들리는 특이한 목소리 (헬륨을 마시고 내는 듯한 목소리)의 안내 방송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안내 방송이 잘 들리게 하기위해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JR 는 각 역마다 전철의 도착을 알리는 멜로디가 다르다. 음의 옾앚이가 다르거나 에비수나 타카다노바바 같이 전철 송 자체가 다른 곳도 있다. 참고로 아톰의 출생지인 타카다노바바 역은 아톰 주제가가 나온다.

토쿄의 자동차 가격과 연료 가격은 우리보다 싼 편 인 데 반해 주차비는 엄청 비싸다. 토쿄의 주행 방향이 우리와 반대인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컬레이터의 서있는 위치 역시 왼쪽이다. 하지만 오사카 등의 칸사이 지방은 우리와 같다.

토쿄 내 모든 전철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인데, 우리나라 역시 금지지만 다들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토쿄에서는 전철에서 사용하는 이가 매우 드물다. 더욱이 큰 소리를 내며 통화하는 경우 전철 내 모든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토쿄의 매너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토쿄 대부분의 주택은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된 구조이고, 집을 임대할 때에도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된 집이 가격도 높다. 토쿄의 행정 구역상에는 섬이 있다. 지도에서 토쿄토 남쪽에 있는 섬들이 토쿄의 관리를 받고 있다.